10.15686/fkl.2024..63.309 OPEN ACCESS

1990년대 여성문학의 지형도 그리기

-환멸과 각성의 교차로에서 길어 올린 여성주체, 여성적 글쓰기

이명호
경희대학교 글로벌커뮤니케이션 학부 영미문화 전공 교수

목차

1 들어가며
2 1990년대 여성운동과 여성문학의 성격
: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와 정체성 정치
3 1990년대 여성문학의 지형도
3.1 여성 주체의 탐색과 여성적 글쓰기의 실험
3.2 사라진 여성들의 복원과 80년대 민중운동에 대한 젠더화된 사후적 기억
3.3 탈젠더화된 포스트개인의 등장과 마이너리티 퀴어 상상력의 출현
4 여성문학의 주류화와 백래시의 도래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3050864)

국문초록

문화적 시간은 선조적으로 흐르지 않는다. 문화의 역사는 지층처럼 겹겹이 쌓여 있다. 과거의 지층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역사적 가능성을 소환하여 미래의 운명과 연결하는 것이 비평의 작업 중 하나라면, 2015년 이후 한국사회에 재부상한 페미니즘과 그 이행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1990년대 여성문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1990년대는 여성문학사의 전환점이 되는 연대이기 때문이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1991년 소비에트 체제의 몰락과 함께 1980년대 변혁운동이 퇴조하면서 거대 이념에 대한 환멸과 냉소가 1990년대의 지배적 감정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이 시기는 성적 각성이 일어난 시기이기도 하다. 대서사의 붕괴는 거대하게 부풀어 오른 남성주체의 김이 빠지는 광경을 목격하도록 만들었지만, 그 그늘 아래에 억눌려 있던 소주체들의 각성과 반란, 자기발견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환멸과 각성이 교차하는 역사적 변곡점에서 1990년대 여성문학은 한국문학의 주변부에 게토화되어 있지 않고 중심부로 진입한다. 본 논문은 1990년대 여성문학의 세 시간성 혹은 전선을 ① 1980년대 민족민중문학에 대한 여성주의적 애도를 통한 주변화된 여성존재의 복원 (잔존 형태) ② 성적 주체로서 '나'의 발견 (지배 형태) ③ 탈젠더화된 포스트개인의 등장과 마이너리티 퀴어 감성의 표출(부상 형태)이라고 보면서, 이 세 전선의 중층결합을 통해 1990년대 여성문학의 지향도를 그리고 있다.

국문핵심어: 1990년대 여성문학, 여성주체, 여성적 글쓰기, 관계적 주체, 여성윤리, 정체성 정치, 인정의 정치, 다중적 정체성, 진정성, 개인, 퀴어, 포스트젠더

1 들어가며

문화적 시간은 선조적으로 흐르지 않는다. 문화의 역사는 지층처럼 겹겹이 쌓여 있다. 과거의 지층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역사적 가능성을 소환하여 미래의 운명과 연결하는 것이 비평의 작업 중 하나라면, 2015년 이후 한국 사회에 재부상한 페미니즘과 그 이행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1990년대 여성문학으

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1990년대는 한국 여성문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1991년 소비에트 체제의 몰락과 함께 1980년대 변혁운동이 퇴조하면서 거대 이념에 대한 환멸과 냉소가 1990년대의 지배적 감정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이런 이념적 변화와 함께 한국 사회에서 소비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도덕적 규범에서 풀려나 자신의 욕망과 육체적 쾌락을 실현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욕구가 집단적 흐름을 형성했다. 개인의 욕망과 쾌락 추구가 소비자본주의와 접속하여 새로운 주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정착해가고 있었다. 1987년 이후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지만 개인의 욕망은 더욱 무성해졌고 경제적 번영과 쾌락에 대한 욕구는 무한대로 팽창했다. 여기에는 1980년대의 금욕적 집단주의와 정치 편향에 대한 대타 의식과 거부심리가 깔려 있었다. 달라진 이념 지형과 소비자본주의의 물결 속에서 1990년대 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연되어 왔던 성평등과 젠더 이슈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대서사의 붕괴는 거대하게 부풀어 오른 남성주체의 김이 빠지는 광경을 목격하도록 만들었지만, 그 그늘 아래에 억눌려 있던 소주체들의 각성과 반란을 촉발하고 자기 발견의 계기로 작용했다. 소주체들의 환멸과 각성이 교차하는 역사적 변곡점에서 1990년대 여성문학은 새로운 전환을 이뤄낸다. 이 글은 1990년대 여성문학이 이뤄낸 전환의 성격을 규명하고 대략적이나마 전체적 지형도를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잠정적으로 본 글은 1990년대 여성문학이 크게 세 시간성(temporality) 혹은 전선(front) 에서 전개되었던 것으로 파악한다. 1990년대라는 설정은 10년 단위의 동질적 시간을 상정하는 것 같지만, 한 시대의 문학을 하나의 시간성으로만 규정할 수는 없다.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특정 시대는 지배적 시간을 중심으로 지나간 시간과 다가올 시간이 중층 결정(overdetermine)되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1] '잔존하는'(residual) 시간성과 '부상하는'(emergent) 시간성은 '지배적'(dominant) 시간성 옆에 혹은 그 아래에 침전되어 있으면서 현재를 과거와 미래로 열어놓는다. 물론 세 시간성 중에서 가장 큰 규정력을 행사하는 것

1 Raymond Williams, *Marxism and Literature*, Oxford UP, 1978, pp. 121-128.

은 지배적 시간성이지만, 그것이 전일적 지배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한 시대 안에서 세 시간성은 서로 교차하고 갈등하면서 불균등하게 교직되어 있다. 1990년대 여성문학과 관련하여 이 세 시간성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형태는 ①1980년대 민족민중문학에 대한 여성주의적 애도를 통한 주변화된 여성 존재의 복원 (잔존 형태) ② 성적 주체로서 '나'의 발견 (지배 형태) ③ 탈젠더화된 포스트개인의 등장과 마이너리티 퀴어 감성의 표출(부상 형태)이라고 본다. ②가 여성 주체의 탐색이라는 1990년대 여성문학의 지배적 전선이라면, ①은 1980년대 남성주의적 이념 문학에 대한 여성주의적 사후적 해석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③은 2000년대 이후 도래할 소수적 상상력을 선취한다. 본 논문은 이 세 문학 형태들이 중층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1990년대 여성 문학장을 형성했던 것으로 파악한다.

2 1990년대 여성운동과 여성문학의 성격 :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와 정체성 정치

1990년대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문제를 대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연대이다. 사회학자 황정미는 "1987년은 한국 여성의 삶을 역사적으로 성찰하는 중요한 기준점"[2]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한국 여성운동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던 가족법 개정 운동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폭압적 유신 체제하에서도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운동과 생존권 투쟁은 면면히 이어져 왔다. 1980년대에 이르러 여성운동의 주축 세력은 민주화와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전체운동의 한 부문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층 민중 여성의 시각을 대변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물론 1980년대에도 여성문제의 독자성을 주장하면서 가부장제에 저항하는 광범한 문화적 실천으로서 여성운동을 주장했던 그룹은 존재했다.[3] 여성문제의 성격

2 황정미, 「젠더 관점에서 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공공 페미니즘과 정체성 정치」, 『경제와 사회』 제 114호, 비판사회학회, 2017, 19쪽.

3 1980-90년대 여성운동의 흐름에 대해서는 조주현,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1980-90년대 한국의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2권 1호, 한국여성학회, 1996, 138-179쪽 참조. 이 글에서 조주현은 80년대 이른바 '진보적' 여성운동에서는 '여성 노동자'의 정체성이, 1990년대 여성운동에서는 다시 '여성 전반'의 정체성이 주도하는 정치가 이루어졌

및 그 극복 방향과 관련하여 상이한 입장을 보였던 두 그룹이 때론 충돌하고 때론 협력하면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4] 그러나 성평등과 젠더 이슈가 한국 사회 전체가 마주해야 할 보편적 의제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87년 6월 항쟁이 쟁취한 민주주의 덕분이다. 87년 항쟁이 열어놓은 민주주의의 가능성은 정치 영역을 넘어 시민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들로 확산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쟁취한 후에도 여성들은 새로운 시민의 대열에 포함되는 동시에 남성 중심적으로 구조화된 권력체제에서 배제되는 역설에 직면한다는 역사적 선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87년 6월 항쟁 이후 한국의 여성들은 민주주의가 잉태한 젠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광범한 투쟁과 실천을 요구받고 있었다. 1990년대는 한국 여성들이 이런 모순을 해결하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도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황정미의 분석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여성운동의 활동은 크게 두 방향에서 전개되었다고 한다. 하나는 '성평등 제도개혁'(gender equality reform)에 집중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체성 정치'(politics of identity)의 형태로 나타났다.[5] 1990년대 한국의 여성운동은 국가 정책을 매개로 현실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영역에 참여함으로써 법과 제도개혁에 집중했다. 이런 노력은 일종의 '공공 페미니즘'(public feminism)의 성격을 띤 것으로서, '성폭력 특별법'(1994), '여성발전기본법'(1995) 가정폭력특별법(1998), 남녀차별금지법(1999) 제정,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 실시(2001), 여성부 설립(2001),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상징이었던 호주제 폐지(2005) 등으로 제도적 결실을 맺었다. 이는 여성운동이 시

다고 본다.

4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론에서 이 두 그룹은 각기 《또하나의 문화》와 《여성과 사회》의 입장으로 대별된다. 이 두 입장을 정리하면서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전체적 흐름과 그 의의를 조망한 글들로는 이혜령, 「빛나는 성좌들—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47호, 상허학회, 2016, 409-454쪽을 참조할 것. 1980년대 변혁운동 하에서 여성해방문학의 성격과 의의에 대해서는 김은하, 「1980년대. 바리케이트 뒤편의 성(性) 전쟁과 여성해방 문학 운동」『상허학보』 51호, 상허학회, 2017, 15-49쪽.

5 황정미, 앞의 글 참조.

민운동이라는 1990년대 이후 새롭게 열린 공간을 활용하여 국가에 개입하면서 이루어낸 개혁의 성과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제도 개혁의 성공은 일정 정도 여성운동의 저항성이 국가기구 속으로 수렴되는 결과를 낳았고,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가속화되었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고용차별과 일상생활에서의 젠더 억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성평등을 진전시키기 위한 민주적 제도의 수립이 '삶의 민주주의'(democracy of life)로 확장되지 못하는 문제를 노출했던 것이다.

광의의 의미에서 정체성 정치는 이전의 사회운동이나 정치에서 배제되고 주변화되었던 존재들이 개인적 삶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억압을 쟁점화하고, 자신들의 정체성과 존재의 인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일컫는다, 자신의 존재와 그 가치에 대한 인정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체성 정치(politics of identity)는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와 만난다.[6] 남성 중심주의 사회에서 남성성과 연결된 특성에는 특권이 인정되는 반면, 여성적인 것으로 코드화된 것들의 가치는 평가절하되어 있다. 여성적인 것의 저평가는 법, 정치, 경제뿐 아니라 일상적 관행과 문화에도 폭넓게 스며들어 있다. 그 결과 여성들은 젠더에 특유한 종속과 부정의로 고통받는다. 정체성 정치는 개인적 삶의 영역에서 발원한 일상적 실천과 정체성을 정치적 이슈로 만드는 활동이다. 사회적 소수자들은 그들의 삶을 규정하는 차별과 억압과 배제의 문제를 표출할 문화적 자원과 수단을 박탈당한 한 채, 자신들의 존재와 정체성을 드러낼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존재와 정체성의 인정이란 기존에 확립된 특수한 자질이나 특성뿐 아니라 아직 구성되지 않은 미지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인정도 포함한다.[7] 이들

6 페미니즘의 양대 축을 이루는 분배의 정치와 인정의 정치, 그리고 양자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낸시 프레이저, 「정체성 정치 시대의 사회정의」를 참조, 이 글은 낸시 프레이저· 악셀 호네트, 김원식· 문성훈 옮김, 『분배냐 인정이냐?: 정치철학적 논쟁』, 사월의 책, 2014에 실려 있다. 정체성의 정치와 인정의 정치에 대한 일반적 논의에 대해서는 찰스 테일러의 논의를 참조할 것. Charles Taylor, "The Politics of Recognition," ed., Amy Cutmannn,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Princeton UP, 1994. pp. 25-73.

은 기존 언어와 문화적 관행 하에서는 발설될 수 없었던 문제를 발설함으로써 자신들의 집합적 경험과 정체성, 그리고 그것의 새로운 발명 가능성을 표현하고자 한다. 서구사회에서 제 2물결 페미니즘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정체성 정치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the personal is political)라는 슬로건에 압축되어 있다. 여성이 젠더 차이를 지닌 개인으로 존재하려면 이 차이가 살아날 수 있는 평등한 조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차별철폐와 기회균등은 개별 존재의 젠더 정체성을 인정받고 차이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전제조건이다. 동시에 여성이 진정한 의미의 평등을 획득하려면 남성을 닮거나 남성과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지닌 존재로 남아 있어야 한다. 차이는 평등의 토대이고, 평등은 차이가 살아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차이의 생성을 위한 평등한 조건은 공적 영역만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급진적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바이고, 이는 '개인적 정치학'(personal politics)의 형태로 표출되었다.[8]

1990년대 한국사회에서 '영 페미니스트'로 불리는 일군의 젊은 여성들이 제기한 '일상의 젠더 정치학'은 여성이 성차를 지닌 개인으로 존재하려면 섹슈얼리티, 사랑, 욕망, 가족관계 등 흔히 권력의 작동 바깥에 있다고 치부되는 사적 영역의 민주화가 필수적이라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었다. 특히 '성적 존재'(sexual being)로서 한 여성이 자신의 욕망과 성적 자유를 확보하려면 그것을 가로막는 남성 중심적인 관행과의 투쟁 없이는 불가능하다. 당시 영 페미니스트들이 주도

---

7 인정의 정치를 과거에 확립된 정체성 뿐 아니라 그것의 "변형"과 "발명" 가능성에 대한 인정, 그런 점에서 "불가능한 차이"(impossible difference)에 대한 요구로 확장해야 한다는 관점에 대해서는 Penelope Deuctscher, *A Politics of Impossible Difference*, Ithaca and Loncon, Cornell UP, 2002, pp.4-6을 참조할 것.

8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사회에서 전개된 제 2물결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Sara M. Evans, *Tidal Wave: How Women Changed America at Century's End*, New York: Free Press, 2003. 특히 2장 참조. 그는 제 2 물결 페미니즘의 가장 뚜렷한 특징을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경계에 대한 도전으로 파악하고, 이를 '개인적 정치학'으로 명명한다. 이 입장은 "개인의 삶에서 정치적이지 않은 사적 영역은 없으며, 궁극적으로 개인적이지 않은 정치적 문제도 없다. 낡은 경계는 무너졌다."라는 문장에 요약되어 있다. 사라 에반스는 이런 개인적 정치학이 풀뿌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소규모 의식개혁집단의 활성화를 비롯해 제 2물결 페미니즘의 급진성과 창조성을 낳은 원동력이었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운동의 "순수성"에 집착하도록 만듦으로써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 요인이기도 했다고 본다.

했던 반성폭력운동은 이른바 '100인위'(2000, "운동사회 내 가부장성과 권위주의 철폐를 위한 여성활동가 모임"의 약칭) 활동으로 나타났다. '100인위'는 노동운동과 진보적 사회단체 활동가들 사이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경과와 가해자 개개인의 실명을 인터넷 네트워크에 공개했다. 이들이 성폭력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80년대 여성운동이 성폭력에 대처하는 방식이나 90년대 여성운동이 취했던 법 제도 개선 운동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인 권인숙은 자신이 겪은 성폭력의 경험을 공권력의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여성문제로 국한하려고 하지 않았다.[9]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국가폭력이라는 구조적 악을 드러내는 것이었지 그 폭력을 자행한 가해자 남성에 대한 직접적 비판이 아니었다. 이와 달리 100인위 활동의 일차적 목적은 국가폭력의 반민주성과 노동 탄압성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그것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통상적인 사법적 절차를 밟는 것도 아니었다. 이들은 진보운동 안에서 사회적 명망과 권력을 쥐고 있던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충격파를 던짐으로써 변화를 촉구하는 급진적 전략을 취했다. 이는 성폭력의 문제를 국가폭력으로 환원하거나 사법적 과정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적인 것을 정치화하는 정체성 정치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사회운동의 변화와 문학의 흐름을 곧장 등치시킬 수는 없겠지만, 기존 사회질서에 맞서는 지향성을 본원적으로 지니고 있는 여성문학이 당대의 시대적 과제와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1990년대 여성운동의 두 방향을 당대 여성문학과 연결지어 보면, 제도개혁보다는 정체성 정치가 보다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9 부천서 성고문 사건은 80년대 여성운동에 기폭제가 된 사건 중 하나이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1986년 6월 '여성단체연합 성고문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것이 이듬해 '한국여성단체 연합'의 발족으로 이어졌다. 권인숙은 1987년 한국여성연합이 수여하는 제1회 올해의 여성성 수상자가 되었는데, 수상소감에서 이렇게 말한다. "성 고문 자체를 해석하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여성들이, 강간이나 강제 추행 같은 정조 관념을 압박하는 고문 형태에 대한 반발과 저 개인에 대한 동정심의 해석으로 이 사건을 축소시키는 경우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운동 탄압을 위해 여성노동자에게 고문으로 성적 추행을 가했다는 사실입니다." 권인숙, 『하나의 벽을 넘어』, 거름, 1989, 271쪽.

일차적으로 문학이 지닌 특수한 성격과 연동되어 있다. 문학은 다른 어떤 영역보다 개인의 자아를 둘러싼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형식이다. 특히 1980년대 남성 중심적 거대 이념 서사와 집단주의적 운동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목소리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1990년대 여성문학은 진보와 여성 사이의 자명한 연결고리를 끊어내면서 '한 개인으로서 여성이 성적 주체로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천착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심화하려는 정치적 기획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1990년대 여성문학은 '광장의 민주주의'를 '방의 민주주의'와 접속하면서 그 방을 '외딴 방'으로 고립시키지 않고 광장과 방을 연결하면서 양자를 동시에 혁신하고자 했다. 신경숙의 소설 제목인 '외딴 방'은 광장의 민주화가 방의 민주화로 이어지지 못할 때 일어나는 비극을 압축하는 상징적 공간이다.

1990년대 여성문학은 "민중 해방을 위해 투쟁했던 1980년대 변혁운동의 열기 속에서도 여성들이 외딴 방에 고립되어 사라져갔거나, 여성이 남성과 함께 변혁의 주체로 광장에 참여했으면서도 여성운동은 전체 변혁운동의 한 부문으로 축소되어 독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면, 여성들의 고립과 침묵을 일으켰던 요인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그녀들의 억눌린 욕망과 망각된 가치를 복원함으로써 광장과 방의 부당한 분리에 맞서고자 했다. 이 작업은 한편에서는 1980년대 운동권 문학에 대한 여성주의적 개입을 통해 성평등과 함께 하지 않는 민주화는 가부장적 기획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금기와 제도적 억압 아래 억눌려 있는 여성들의 욕망과 열정을 드러냄으로써 주체로서 여성의 자유를 실험하는 것이었다."[10] 첫 번째 작업이 80년대 변혁운동의 한 부문으로 포섭되었던 여성주의적 시각의 독자성을 추구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작업은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이다."란 슬로건에 들어 있는 두 단어, 즉 개인성과 정치성의 함의를 탐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흔히 사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10 이명호, 「성적 주체로서 개인의 발견과 여성적 글쓰기의 실험」, 여성문학사연구모임 엮음, 『1990년대: 성차화된 개인과 여성적 글쓰기』, 민음사, 2024, 17쪽. 이 글은 1990년대 여성문학을 대표하는 작품들에 대한 해설의 형태를 띤 시대개괄이라 할 수 있는데, 본 논문은 이 글을 기반으로 하되 1990년대 여성문학의 지형도를 그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두 글 사이에 시각이나 내용상의 겹침이 다소간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권력의 작동과 무관하다고 여겨졌던 일상의 영역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침윤되어 있음을 밝히고 그것과의 대결을 피하지 않아야 했다. 혁명은 연인들의 잠자리나 부부의 침실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미시 권력은 이런 사적 영역에서 더 교묘하고 음험하게 작동한다. 정치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분리해서는 안 되며, 사적인 것을 공적인 것과 떼어 놓아서도 안 된다. 사적 영역에서의 종속은 공적 영역에서의 종속과 분리될 수 없다. 두 영역의 분리 불가능에 대한 자의식은 정치성을 공사 영역을 포괄하는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하여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고, 성적인 것은 권력적이며, 여성주의는 삶을 혁신하는 전방위적 실천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졌다. 그 중심에 한 개인으로서 여성인 '나'에 대한 탐구가 놓여 있다. 여성으로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탐구와 자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소설가 전경린으로부터 "자아주의"라는 명명을 얻기도 했다. 그녀의 작품에서 자아주의를 추구하는 삼십 대 가정주부는 "나의 손가락들, 나의 무릎, 나의 등, 나의 귀, 나의 가슴, 나의 겨드랑이 (…) 그것이 왜 남편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말인가. (…)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나의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진다.[11]. 그리고 내 몸의 주인은 '나'라는 각성은 "자기 속의 격정"을 해방시키는 주체화 작업으로 이어진다. 이 주체화 작업이 필자가 앞서 1990년대 여성문학의 지배적 전선이라고 부른 것의 핵심을 구성한다.

3 1990년대 여성문학의 지형도

3.1 여성 주체의 탐색과 여성적 글쓰기의 실험

개인에 대한 관심은 여성문학만이 아니라 1990년대 문학 전반에 걸쳐 광범하게 일어난 현상이다. 1990년대 문학의 진지한 대변자라 할 수 있는 황종연은 내면의 자율성과 진정성에 토대를 둔 개인의 문학을 발전시킨 것을 1990년대 문학이 거둔 중요한 성취라고 평가한다.[12] "90년대 문학에 어떤 우세한 모럴이 있다면

11 전경린, 『염소를 모든 여자』, 문학동네, 1996, 57-58쪽.

12 황종연, 「내향적 인간의 진실—신경숙, 윤대녕, 내면성의 문학에 대한 고발」, 『비루한 것의 카니발』, 문학동네, 2001, 113-137쪽.

그것은 관습적 정체성들에 순종하지 않는 것, 개인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진정성의 모럴이 그것이다."[13] 그는 한국 민주주의의 기반을 강화하려면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가치들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정치학자 최장집의 제안을 받아들여,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자유주의적 존중이 현대 한국 민주주의에서나 한국문학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한다. 고은의 『만인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황종연은 한국문학이 자신의 진정성 속에서 존엄하다고 느끼는 인간 유형에 무심했다고 말한다.[14] 이런 경향은 민중이라는 집합적 주체의 표현에 집중했던 1980년대 민중문학의 경우 두드러진다고 한다. 이를테면, 근대 한국인의 집합적 초상을 그린 '만인보'의 세계에는 "집단적 행위 규범이 워낙 일반적이어서 집단 소속감이 약하거나 집단의 일체감을 손상시키는 개인들은 배척당할 수밖에 없다."[15] 이 세계에서는 "근대적 개인의 문화 즉 도덕적 관습으로부터의 자유와 진정성에 근거한 자아 발전을 이상으로 삼고 그 이상의 실현에 합당한 정치, 사회, 문화의 형식들을 요구하고 추구하는 개인의 문화가 누락되었다."[16]

황종연은 1980년대 민중문학에 빠져 있는 개인의 문화, 그리고 그 개인의 핵심을 구성하는 내면성과 진정성의 문화를 1990년대 문학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본다. 그가 찰스 테일러를 원용하여 1990년대 문학을 읽어내는 키워드로 발전시키고 있는 '진정성'의 파토스는 개인으로 하여금 외부적 기준에 기대지 않고 자신과의 진실한 접촉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근대 주체의 기획과 연동되어 있다. 진정성의 추구는 내면의 문학이 번성할 비옥한 문화적 환경을 이룬다. 황종연에 따르면 내면의 문학이 1990년대에 부상했던 것은 이 시기에 이르러 민중과의 동일시가 가져다준 주체적 삶에 대한 믿음은 사라진 반면 상품의 유혹은 날로 커지는 소비자본주의의 현실에서 개인들은 자기 내부에서 그 자신을 지탱해줄 권위와 정체성을 찾으려는 욕망을 갖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인석, 장정일, 윤대녕, 신경숙, 전경린, 은희경 등 황종연이 1990년대 개인

13 위의 글, 124쪽.
14 황종연, 「민주화 이후의 정치와 문학」, 『탕아를 위한 비평』, 문학동네, 2012, 89쪽.
15 위의 글, 88쪽,
16 위의 글, 89쪽.

의 문학을 대표한다고 지목한 작가들은 주제나 스타일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자신을 지탱해줄 정당성을 자기 내부에서 찾는다는 점에서는 일정한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진정성의 문학은 1980년대 변혁의 희망이 환상이었음을 인정하는 환멸의 이야기, 여성성의 지배적 규범과 갈등하면서 반란과 탈출을 시도하는 여성들의 자기 고백적 서사, 허울뿐인 도덕을 조롱하고 사회적 금기를 거스르는 위반의 서사 등 여러 형태로 변주되어 나타났다는 것이다.

집단의 규범이 개인의 삶을 규정하는 힘으로 강고하게 유지되어왔던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진정성을 신장시키는 문학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1990년대 문학이 그 필요에 부응하는 문학적 성과를 보여주었다는 황종연의 주장에는 공감할만한 부분이 적지 않다. 문제는 그가 말한 개인이 추상적 개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 속에서 특정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구체적 개인, 성적, 계급적, 민족적으로 특정한 표지를 자신의 몸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상황적 개인'(situated individual)이라는 점이다. 성별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주체성을 확보하거나 혹은 확보하는 데 실패한다. 이를테면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과 함께 성적 자율권은 한 개인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연관된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법적 권리의 표현이다. 이런 성적 자율권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는 남성과 달리 여성들이 성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로막는 남성중심적 관행, 이데올로기, 제도 전반에 대한 싸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여성이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회관계에서 절연된 사적 영역으로 퇴각하는 방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사적인 것 속에 이미 온갖 사회적 힘들이 들어와 각축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말이 사적인 것은 없으므로 사적인 것을 공적인 것 속으로 해소시켜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아니 그 반대의 요구가 필요하다. 여성들이 성차별적으로 규정된 사적 영역에서 인격의 존엄을 무시당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면, 이런 현실은 여성들에게 사적 자율성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절실한 필요성을 말해준다. 일찍이 눈 밝은 한 여성학자가 반성폭력운동과 관련하여 주장했듯이, "개인적인 것의 정치화가 개인적인 것의 소멸을 위한 정치화가 아니듯, 반성폭력운동은 여성들의 다양한 성적 욕망과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다양한

정체성과 욕망의 기획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율적 주체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인정 투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17]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란 말 속에 내재된 해방적 가능성을 실현하려면, 한 개인으로서 여성이 자신의 욕망과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주체 위치를 얻기 위한 투쟁이 일어나야 한다. 여성의 주체성을 가로막는 사회적 관행이나 남성 권력에 대한 싸움 없이 주체 위치를 획득할 수는 없다.

한국 사회에서 자율적 자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황종연의 주장에서 문제적인 것은, 그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하는 1990년대 문학에서 자아의 진정성을 가로막는 힘들에 대한 투쟁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그도 인정하듯이 자아의 접촉은 자아의 미궁에 빠지기 쉽고 세계상실의 위험을 안고 있다. 김영찬의 지적대로, "치열한 자아 탐구는 자율적인 자아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것을 끊임없이 간섭하고 탈구시키는 '바깥'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법이다."[18] 김영찬은 그가 바깥이라 부른 자아 내외부의 '타자성'과 '현실세계'에 대한 성찰의 결핍이 1990년대 문학을 나르시시즘적 자폐의 문학으로 만들었다고 말한다. 사실 1990년대 문학의 나르시시즘적 속성은 일찍이 황종연 자신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나르시시즘은 개인의 단자화가 촉진된 현대의 실존형식에 부합한다. 그런 까닭에 나르시시즘의 세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현대적 삶의 방식에 대한 진지한 탐구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19] 그러나 나르시시즘에 대한 탐구와 그것의 무비판적 수용은 다른 문제이며, 1990년대 여성문학을 나르시시즘의 틀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한가는 논쟁적인 주제이다. 1990년대 문학의 전반적 경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김영찬은 1990년대 문학이 "고립된 상상적 자기 의식을 절대화함으로써 스스로 거부했던 이전 시기의 자명한 환상"을 반복하고 있다고 진단한다.[20] 하지만 1990년대 문학을 (라캉의) '상상적 자아'의 프레임에 가두는 이

17 신상숙, 「성폭력의 의미 구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의 딜레마」, 『여성과사회』 제13호, 한국여성연구소, 2001, 41-42쪽.

18 김영찬, 「2000년대, 한국문학을 위한 비판적 단상」, 『창작과 비평』 2005년 가을호, 창비, 302쪽.

19 황종연, 『비루한 것의 카니발』, 문학동네, 2001, 286-86쪽.

20 김영찬, 「1990년대 문학의 종언, 그리고 그 이후」, 『비평극장의 유령들』, 창비, 2006, 50쪽.

런 해석은 개발독재기의 파시즘 체제뿐 아니라 민주와 민중을 주장했던 진보 운동 안에서도 타자화되었던 여성들이 1990년대에 들어와 새롭게 시도하는 주체화 기획의 의의를 인정하는 데 지나치게 인색하다.

물론 1990년대 문학 일반에 나타나는 나르시시즘적 위험으로부터 1990년대 여성문학이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전경린과 은희경의 일부 소설들에는 이런 혐의의 소지가 없지 않다. 이를테면, 이들의 작품에서 성적 자유는 성적 대상화와 성폭력에 대한 저항과 투쟁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이 충분히 관철되지 못하고 있으며(전경린), 불안정한 인간관계의 현실에 대응하여 기존의 도덕적 정형으로부터 탈주하고자 하는 유목적 자유는 종종 현실 순응과 냉소적 체념으로 귀착되기도 한다(은희경). 그러나 이런 문제적 경향을 완전히 떨치고 있지는 못하지만 1990년대 여성문학이 공적 민주주의를 사적 민주주의와 접속시킴으로써 여성의 주체성 획득을 위한 문학적 전투를 치러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주제나 스타일과 장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는 1990년대 여성작가들을 묶어주는 공통적 문제의식을 찾는다면 여성 주체에 대한 탐색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수 여성작가들에게 주체성이란 타자와의 교류를 배제하거나 타자에게서 밀봉된 주체라기보다는—그런 측면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지만—주체 내외부의 타자들과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는 면모를 보인다. '관계적 주체'(relational subject) 혹은 '상호 주체'(interactive subject)의 추구라 부를 수 있는 이런 기획 속에는 남성적 주체와 다른 여성적 주체 양식을 찾으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이는 '여성은 무엇을 원하는가'를 깊이 탐색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익히 알다시피 남성 중심 문화에서 여성은 그 자신의 존재로서가 아니라 동일자의 거울상으로 존재해왔다. 남성 주체의 전체성과 동일성을 깨고 여성이 성적 차이를 지닌 그 자신으로 존재하려면 '주체 되기'가 일어나야 한다. 주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끝없는 되기의 과정 중에 있다. 여성이 주체로 생성되어야 여성과 남성은 환원 불가능한 차이를 지닌 존재로서 교환과 초월이 일어나는 상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상호적 관계를 맺기 위한 이런 자기 초월의 과정에서 "주체가 타자에게, 타자가 주체에게 종속되거나 환원되지 않으려면 주체-타자의 관계 못지않게 주체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돌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 주체성이 단번에 획득되어 고정되는 것도 아니고 홀로 형성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주체들이 이미 성적으로 분화된 존재론적 차이를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체 되기와 자기 동일성은 서로를 전제하고 있다."[21] 여성이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가부장적 문화에서 폄하되거나 남성적으로 전유되어 왔던 경험들, 이를테면 모성과 모계를 재전유하여 새로이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남성의 계보를 뒷받침하는 가부장적 모성 신화를 해체하면서도 어머니를 발견하고 긍정하는 작업, 돌보고 창조하고 생성하는 힘으로서 모성성을 살려내는 작업이다. 여성으로서 주체가 되려면 어머니와 딸의 관계, 그리고 여성들 사이의 관계에서 잃어버린 모계를 재발견하고 창조적 능력으로서 모성을 되찾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90년대 여성문학이 여성들의 일상에 보인 관심,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폄하되었던 여성들의 체험에 내재된 윤리적 가치와 의미를 복원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신경숙, 최윤, 공선옥, 나희덕), 그리고 이를 여성적 언어와 문체로 표현하기 위해 시도한 다양한 형식 실험들은 90년대 여성문학이 거둔 중요한 성과이다. 90년대 여성 소설의 주요 모티브 가운데 하나인 불륜과 가출의 이야기도 되풀이되면서 그 불온성을 잃어버린 감이 없지 않지만,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여성의 욕망이 충돌하는 지점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한 개인으로서 여성의 주체화 작업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신경숙 소설에서 만나는 상처 입은 여성들의 내면적 진실을 복원하려는 노력과 글쓰기가 그 진실에 닿기 위해 시도한 문체 실험(이른바 내성적, 독백적 문체) 역시 주체의 진정성의 추구와 떼려야 뗄 수 없다. 그녀의 소설이 복원하려는 사적 진실은 일부 논자들이 주장하듯이 고립된 개인의 폐쇄성이나 단절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현실과 탯줄처럼 이어져 있다.[22]

---

21 황주영, 「상호주체성의 가능성: 이리가레의 수평적 초월과 말의 창조」, 『시대와 철학』 26권 1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5, 477-478쪽.

22 서영채는 "『외딴방』에서의 희재 언니의 죽음에는 어떤 사회적 의미도 없다. 단지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할 만큼 깊은 상처를 입은 외로운 짐승 한 마리가 있었을 뿐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신경숙 소설이 "현실에 등을 돌린 채" 상처 입은 외로운 짐승의 내면이라는 "사적 진정성의 우물"로 침잠해 들어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희재 언니의 자살은 사적 사건이지만 그것에 어떤 사회적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녀의 죽음은 가난과 고된 노동, 가부

은희경과 전경린과 한강은 90년대 여성문학의 주요 경향이었던 여성 욕망 탐구의 대표 주자들이다. 전경린은 여성들의 성애적 욕망과 열정적 사랑을 억누르는 가족으로부터 탈주를 시도하고 있으며, 은희경은 여성을 포획하는 낭만적 사랑의 환상에 대해 냉소적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자기를 지키려고 한다. 한강의 일부 소설은 식물로의 존재론적 변신을 통해 살생과 폭력에 기초해 있는 인간 삶에 대한 도저한 저항을 보여준다. 이 저항은 가장 근원적 의미에서 여성적이다. 이들이 보여주는 욕망의 추구와 자아에 대한 배려, 그리고 가부장적 사회의 기저에 깔린 폭력성에 대한 거부는 여성적 주체의 탐색, 그리고 그와 연관된 여성적 윤리의 실천이라는 90년대 여성문학의 핵심 기획에 맞닿아있다.

1990년대 여성문학의 주요 과제였던 여성 주체의 탐색은 정치성의 범위를 좁은 의미의 이데올로기적 차원을 넘어 심리적, 육체적, 정동적 층위로 확대하도록 요구했고, 기존 재현의 틀을 넘어 무의식적 욕망과 신체적 정동이 글쓰기 속으로 들어오는 체현된(embodied) 글쓰기의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했다. '여성적 글쓰기'(프랑스어 écriture féminine)란 이 체현된 글쓰기를 가리키는 비평적 개념이다. 1990년대 다수의 여성 평론가들이 프랑스 페미니스트들로부터 차용한 이 개념은 남성적 상징질서의 언어를 넘어 여성들의 신체 감각과 정동, 무의식적 욕망과 충동에 충실한 언어, 감각하고 욕망하는 여자들의 낯선 목소리들을 표현하는 글쓰기를 가리키는 비평 용어로 자리 잡는다.

"주인의 언어로는 주인의 집을 부술 수 없다."라는 오드리 로드의 문장은 좀 다른 맥락에서 나온 것이지만, 남성의 언어로는 담아낼 수 없는 여성의 경험을 표현하는 언어, 여성의 '몸말'과 '글의 몸'(文體)을 찾으려는 시도를 선언적으로 표시한다. 이런 여성적 언어와 문체는 여성이 놓여있는 '외적 현실'(external reality)과 '일치'하거나 그것을 직접적으로 '재현'(represent)하지 않으며, 여성 자신에게도 낯선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23] 프랑스 페미니스트 루스 이리가레

장적 성문화가 겹겹이 응축된 사회적 결과이다. 특히 동거하던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그 남자가 아이를 지우자고 요구했던 사건은 그녀가 자살을 결심하게 만든 직접적 원인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는 억압적 성문화가 미혼의 젊은 여성 노동자에게 가했을 사회적 압박을 보여준다. 서영채, 「냉소주의, 죽음, 매저키즘: 90년대 소설에 대한 한 성찰」, 『문학동네』 21호, 문학동네, 1999년 겨울호, 1-33쪽.

의 용어를 빌자면,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은 남성 언어와 담론에 편입되어 그것을 '반사하는 여성성'(speculative femininity)과 남성 담론에 의해 지워졌지만 완전히 삭제되지 않고 남성 담론의 파열과 부재로 존재하는 '잉여적 여성성' (excessive femininity)으로 쪼개져 있다. 반사적 여성성은 남성이라는 하나의 성만 존재하는 일원론적 이항대립 구도에서 남성을 되비추거나(mirroring) 그것과 대립하거나(opposing) 그것을 지탱하는(supporting) 종속적 대립물로 구성되는 여성성이다. 반면에 잉여적 여성성은 이런 일원론적 이분법의 구도에 속하지 않으며 이분법에 기초한 차이의 담론을 통해서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재현될 수 없다. 잉여적 여성성은 남성 담론 하에서는 '재현 불가능성'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여성성을 가리키기 위해 이리가레가 고안한 용어이다. 엄밀한 의미의 '여성적 글쓰기'는 남성 담론 하에서 파열과 잉여로 존재하는 여성성을 표현하는 글쓰기를 가리킨다. 그러나 많은 경우 여성들의 글쓰기는 반사적 여성성과 잉여적 여성성 사이에 찢겨 있고, '여성의 경험'이라는 통칭 속에는 양자가 모순적으로 혼재되어 있다. 흔히 여성성이라고 불리는 여러 자질들이 지배적 남성성을 되비추고 그것을 내면화한 여성성에 머물러 있기 쉬운 것은 이 때문이다. 넓은 의미의 여성적 글쓰기는 일정 정도 양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적지 않은 1990년대 여성 작가들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적인 것이라고 정의되어온 특성의 일방적 특권을 해체하고 그동안 폄하되어온 여성적 자질의 윤리적 가치, 이를테면 모성적 돌봄과 관계 지향성을 재전유하는 경향을 보인다(신경숙, 공선옥, 나희덕, 허수경). 그중 전위적 흐름은 잉여적 여성성을 언표화하는 글쓰기를 실험한다(한강, 박서

23 1990년대 여성비평에서 여성성을 과잉 담론화하면서 여성과 여성의 현실이 사라지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양선, 「2000년대 한국 여성문학 비평의 쟁점과 과제」, 『안과밖』 21호, 영미문학연구회, 2006; 서영인, 「1990년대 문학 지형과 여성문학 담론」, 『# 문학은 위험하다: 지금 여기의 페미니즘과 독자 시대의 한국문학』, 민음사, 2019; 조연정, 『여성시학, 1980-1990』, 문학과 지성사, 2021; 심진경, 「이것은 페미니즘이 아닌 것이 아니다」, 『더러운 페미니즘』, 민음사, 2023. 참조. 1990년대 여성문학에서 여성성 담론이 과잉으로 흐르면서 여성의 현실이 사라졌다는 이들의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여성의 현실 자체가 남성질서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면 그 질서 하에서 그 질서의 원리로는 온전히 재현될 수 없는 여성의 욕망과 언어를 재현하려는 시도가 갖는 의의에 대해 좀 더 적극적 평가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원, 김언희, 김혜순). 특히 이런 측면은 여성 시에서 두드러진다. 이 시기 여성 시인들은 여성의 육체 체험에 주목해 가부장적 규범 아래에서 억압당하는 여성들의 욕망과 정동을 표출했다. 박서원은 낙태를 암시하는 상황에서 "엄마, 이빨을 갈며 불온한 서적을 태우고 바로 당신이었던 육체에 세계를 심겠어 (…) 두 눈을 부릅뜨고 애비 없는 아이 하나 낳겠어"라는 도발적 선언과 행위를 통해[24], 김언희는 팥빙수에 들어가는 얼음처럼 자신의 몸을 톱으로 썰고 그 위에 피를 뿌리는 자기 파괴적 행위를 통해 애비의 질서에 맞서고자 한다. 김언희의 시구를 빌리면, 그녀들에게 "모든 애비는 의붓 애비"이다. 그녀들은 "아버지,/아버지,/개가죽을 쓰고 오세요."[25]라고 말하며 애비를 조롱하거나, "애비 없는 세계"를 살아간다. 평론가 신수정에 따르면, 가부장적 상징질서의 조롱과 전복을 위해 90년대 여성 작가와 시인들은 자신들의 몸을 "푸줏간에 걸린 고기"로 전시하기를 마다하지 않고,[26] 피 흘리는 '살덩이의 글쓰기'를 지향하며, 자기 안에서 터져 나오는 "비명"에 화답하고자 한다. 비명은 아직 언어화되기 이전의 원초적 몸의 소리이다. 이를 통해 이들은 자기 안의 어머니를 발견하고, 잃어버린 여성성과 억압된 여성적 욕망을 언어화하려고 한다.

3.2 사라진 여성들의 복원과 80년대 민족민중운동에 대한 젠더화된 사후적 기억

1990년대 초반 등장한 후일담 문학은 흔히 80년대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급한 청산이거나 과거 혁명적 자아에 대한 향수에 갇힌 퇴행적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졌다. 동구권 사회주의와 소비에트 체제가 몰락하고 진보의 이념이 무너지는 거대한 역사의 변화 앞에서 자신들이 추구했던 변혁운동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깨

24 박서원, 「엄마, 애비 없는 아이를 낳고 싶어」, 『박서원 시전집』, 최측의농간, 2018, 18쪽.

25 김언희, 「아버지, 아버지」, 『트렁크 』, 문학동네, 2020, 22쪽.

26 신수정, 「비명과 언어—여성을 말한다는 것」, 『푸줏간에 걸린 고기』, 문학동네, 2003, 9쪽. 신수정은 신경숙의 소설 『바이올렛』과 김혜순의 시집 『불쌍한 사랑기계』를 이런 시각에서 읽지만, 이런 의미의 여성적 글쓰기를 실천한 경우는 이들 외에도 최윤의 일련의 소설과 박서원, 김정란, 최승자의 시를 들 수 있다.

닫게 된 운동권 세대는 1990년대를 휘황하게 밝힌 소비자본주의의 현실에 투항하면서 과거의 활동을 부정하거나, 달라진 현실에 맞춰 진보의 목표와 방향을 갱신하지 못하고 향수에 빠진다. 청산과 향수, 부정과 투항,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치욕이 후일담 문학의 전부라면, 그것은 방향을 상실한 시대 부적응자의 자기 위안적 담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386세대 여성 후일담 문학은 남성과 함께 역사의 광장에 주체로 참여했으면서도 주변화되지 않을 수 없었던 여성들의 활동을 기억함으로써 진보 운동의 젠더 모순을 드러내고, 운동의 역사에 공백으로 남겨진 여성들의 흔적을 복원하는 증언 텍스트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27] 여성 후일담 문학을 통해 80년대 변혁운동은 남성 노동자계급의 형제 투쟁이었지 여성 자매들을 위한 것으로서는 현격히 부족한 것이었음이 밝혀지고, 계급 문제로 환원할 수 없는 젠더 모순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운동의 대의에 헌신하기 위해 성이 지워진 중성적 주체가 되는 길을 강요당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체적 욕구와 성적 욕망을 억압해왔음을 깨닫게 된다(김인숙). 특히 중산층 가정을 탈출해 이른바 '의식화' 과정을 거쳐 민주화 운동 조직에 가담하거나 노동 현장에 위장 취업함으로써 투사로의 존재 변형을 시도했던 운동권 여학생들이 남성 중심적으로 조직된 문화에서 특유하게 부딪쳤던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이 '여성' 활동가로서 이루었던 성장의 이야기는 남성주의적 혁명가 모델을 여성주의적으로 탈취하는 의의가 있다(공지영). 최영미의 일련의 시와 최윤, 김인숙, 공지영의 소설은 운동의 역사에 대한 젠더 증언 서사로 기능하면서 1980년대 민중문학과 1990년대 성차화된 개인의 문학을 잇는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윤의 소설은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광주항쟁을 여성의 눈으로 읽어낸 「저기 한점 소리 없이 꽃잎이 지고」와 민중운동에 참여했으면서도 역사에서 기록되지 못했던 여성들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회색 눈사람」은 특별한 주목을 요한다. 최윤이 1988년에 쓴 「저기 한 점 소리 없이 꽃잎이 지고」는 광주항쟁을 다룬 1980년대의 전형적인 소설들과는 여러 측면에서 다

27 김은하, 「살아남은 자의 드라마: 여성후일담의 이중적 자아 기획」,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310-336쪽 참조.

르다. 같은 해 발표된 홍희담의 「깃발」은 군인들의 학살을 목격한 민중들이 무장투쟁을 선택하고 시민군의 일원으로 도청에 남아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와 이들의 싸움을 기록하고 역사적 투쟁을 계속해나가고 있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 이 작품에서 죽음으로써 항쟁의 주체가 되었던 이들이나 살아남아서 항쟁을 지속하려는 중심인물들은 모두 여성이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광주항쟁에 대한 민중여성의 관점을 일관되게 견지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윤의 「저기 한 점 소리 없이 꽃잎이 지고」는 민중 여성을 항쟁의 주체로 서술하는 이런 전형적 관점과는 다른 지점에서 광주의 경험에 다가가고자 한다. 여기서는 아들의 죽음에 맞서 광주의 거리에 뛰어들었던 어머니가 총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한 어린 소녀의 내면에 다가가는 것에 서술의 초점이 맞춰진다. 소녀의 내면은 이미 정상적 언어로는 접근할 수 없는 광기의 세계로 들어갔다. 엄마의 죽음이라는 트라우마적 장면에 더해 자신이 엄마의 손을 뿌리쳤다는 죄책감은 그녀의 마음에 검은 휘장을 드리웠다. 누구도 이 휘장을 뚫고 들어갈 수 없다. 그녀는 이미 자신을 휘장 속에 가둬버렸기 때문이다. 심리적 절벽 속에 갇힌 미친 여성이 항쟁의 의식적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소설은 장씨로 불리는 '남자'와 죽은 오빠의 친구들인 '우리'라는 남성 화자들을 등장시켜 자기 안에 갇힌 실성한 소녀의 내면에 다가가고 그녀의 고통에 공명하는 외부자의 시선을 제공한다. 그러나 소설은 이런 우회로에만 머물지 않고 소녀에게 자기 이야기를 스스로 말하는 내적 독백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광주항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기록에서 지워진 한 여성의 내적 경험과 언어를 복원한다. 궁극적으로 불가능한 이 복원에의 노력을 통해 작품은 재현할 수 없는 것을 재현하고 증언할 수 없는 것을 증언하고자 한다. 이 소설은 국가폭력에 희생된 한 여성의 삶을 1980년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즉 개인의 사적 내면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개인의 내면적 삶 또한 역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임을 드러냄으로써 역사와 개인의 얽힘을 조명한다.

최윤의 또다른 단편 「회색 눈사람」에 등장하는 희진과 하원, 두 여성인물은 운동에 참여했으면서도 '우리'라는 혁명적 주체에 들지 못한 채 문밖에 남아있는 여성들이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후 비밀 조직에 참여했던 남성들은 과거의 이력을 훈장 삼아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만, 이 여성들은 지역에서 이름 없는 활동

가로 살아가거나 타지에서 외로이 죽어간다. 그녀들은 공적 역사에서 그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기억해줄 사람 없는 유령적 존재로 존재한다. 최윤의 소설작업은 이 유령적 여성들이 이룬 역사적 기여에 대한 여성주의적 인정의 서사이다. 이는 소수자로서 여성의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1990년대 여성문학의 지배적 전선이 주도한 주체화 작업을 뒷받침한다.

3.3 탈젠더화된 포스트개인의 등장과 마이너러티 퀴어 상상력의 출현

1997년 한국 사회를 강타한 IMF는 여성주체의 탐색이라는 90년대 전반의 기획을 뒤흔들어 놓았다. 가족은 무너지고, 사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생존이 삶의 가장 절박한 화두가 될 것이라는 점을 젊은 여성들은 익히 알고 있다. 더 이상 친밀한 관계를 꿈꾸지 않는 그녀들은 감정이 삭제된 건조한 섹스를 나누며 부유한다. 그녀들이 사귀는 남자들도 자본주의의 외곽에서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취약한 존재들이다. 그들은 더 이상 여성을 억압할 물질적 힘과 상징 권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 생은 변경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어떤 결정적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버린 젊은 영혼들은 자동차를 몰고 국도를 달리거나 도시의 뒷골목을 몰려다니다가 누군가의 아내로 혹은 남편으로 기존 질서 속으로 들어간다. 이들은 세상의 규범에 순응하지도 그것에 맞서 싸우지도 않는다. 싸워야 할 대타적 존재가 흐려지고 쟁취해야 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에 자본주의적 상품질서가 주는 가상적 쾌락을 향유하는 포스트모던 걸들이 배수아와 하성란의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모습이다. 여기엔 젠더의 경계도 분명치 않다. 이들의 소설은 젠더 대립이 희미해진 세계에서 도시를 유랑하는 신세대 여성들의 욕망과 상품질서 속에 몸을 깊숙이 담그고 있으면서도 그 질서에 안착하지 못하고 실종되거나 절멸을 꿈꾸는 여성들을 그린다. 이 절멸과 실종의 꿈속에는 세상이 순치시키려고 하지만 끝내 완전히 길들일 수 없는 욕망이 숨어있다. 그러나 그 욕망은 기성 체제와 맞설 만큼 격렬하거나 강고하지 않다. 2000년대 문학을 선취하는 듯한 탈젠더, 탈국가, 탈감정, 탈주체의 상상력이 이들의 소설에 등장한다. 이 포스트 개인들은 젠더를 넘고 국경을 넘는다.

이 포스트개인 옆에 1990년대 여성문학은 오랫동안 주류문학 안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던 퀴어 감수성과 SF 상상력을 출현시킨다. 최윤, 이남희, 송경아의 소설들은 여성문학 안에서도 제대로 발화되지 못했던 퀴어 경험과 SF상상력을 드러낸다. 최윤의 「하나코는 없다」는 남성 동성사회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부재의 자리밖에 할당받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재 속에서 여성들 사이의 퀴어적 연대가 어떻게 면면히 흐르고 있는지 드러낸다. 소설은 남성들의 자기중심적 시각과 환상을 드러내면서, 이들의 시선에는 잡히지 않는 여성들의 존재와 여성들 사이의 우정과 퀴어 동반자 관계를 암시한다. 이남희의 「플라스틱 섹스」는 30대 여성 소설가가 초록이라는 이름의 10대 소녀와 나누는 레즈비언적 관계를 소설화하면서 레즈비언적 욕망과 성적 관계를 드러낸다. 레즈비언적 성관계와 육체 체험을 문자화하는 것이 금기로 작용했던 시절에 「플라스틱 섹스」는 여성들 사이의 유연한 몸과 섹스의 경험을 표현한 선구적 퀴어 소설로 평가되어야 한다. 송경아의 「바리-길 위에서」는 한국 전통 설화 바리데기 이야기를 SF적으로 다시 쓴 작품이다. 소설은 석금과 바리, 두 자매의 대화를 통해 쓸모없는 데이터로 인해 무너져 내린 세계를 다시 일으켜 세울 필요성을 밝히고, 지적 호기심으로 충만한 주인공 바리를 통해 세계 구원의 과제를 수행한다. 송경아는 가부장적 효심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던 설화의 주인공을 여성주의 SF의 주인공으로 재탄생시키면서 이를 퀴어 상상력과 결합한다. 1990년대 최윤과 이남희와 송경아가 선보인 퀴어 감수성과 SF 상상력은 2000년대 이후 한국문학에 보다 다채로운 형태로 등장한다. 1990년대에 미리 도착한 이들의 상상력은 2000년대 문학을 선취하면서 그것을 키우는 자양분이 된다.

이들의 문학에 등장하는 이 새로운 존재들이 여성 주체를 허물어뜨리고 젠더를 실종시켰는지, 아니면 그 주체를 내외부의 타자에게로 열어놓고 다양한 정체성들을 실험할 수 있는 개방적 공간을 열었는지는 2000년대 여성문학에 대한 평가를 통해 드러날 것이다. 개인의 정체성은 흔히 삼두체제로 불리는 계급, 젠더, 인종 외에도 민족, 성적 지향성, 지역, 세대, 종교 등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이 요소들 사이에 위계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고 그것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것으로 개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복수적 차이들의 나열이 차이에 대한 무관심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차이의 정치가 의미있는 것이 되려면 차이

들이 서로 충돌하고 연대하는 복합적 과정을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개인들은 집합적 정체성들이 서로 얽히는 지점에 자아의 근원을 두고 있고, 이 다중적 정체성들이 서로 충돌하고 연결되는 회로를 따라 자아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구한다. 여성문학은 개개 여성들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집합적 정체성들이 서로 충돌하고 연대하는 과정에 훨씬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 그것은 1990년대 여성문학이 개척한 여성주체에 대한 탐색을 이어가면서도 그것이 고립과 자폐에 떨어지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과 소통하는 길이 될 것이다.

4 여성문학의 주류화와 백래시의 도래

1990년대 여성문학은 더 이상 한국문학의 주변에 게토화되지 않고 중심부로 진입하여 문학장을 재편하는 데 성공했다. 제도권 바깥의 대항 담론에서 중심부로 들어가 자신의 입지를 세우는 주류화 과정에서 일정 정도 제도화는 불가피했다. 광장의 민주주의를 방의 민주주의와 연결하고 성차화된 개인으로서 여성의 자유를 실험한 것은 이 시기 여성문학의 지향점이자 주요 성취였다. 그러나 여성의 주체성은 그것을 가로막는 힘들과의 투쟁 없이는 쟁취될 수 없다. 1990년대 여성문학은 계급적, 민족적 이데올로기에 갇혀있던 정치성을 젠더적 시각에서 확장하면서 여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갖는 복합적 의미를 탐구했다. 이를 통해 90년대 여성문학은 1) 여성 주체를 탐색하면서 여성적 글쓰기를 실험했고, 2) 2000년대 이후 도래할 포스트개인을 선취하며 일정 정도 소수자적 문제의식을 포용해 들일 수 있었으며 3) 1980년대 남성 중심의 변혁운동에 남성과 함께 참여했으면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주변으로 밀려났던 여성들의 모순에 찬 경험과 그들의 역사적 기여를 재평가할 수 있었다. 이 세 전선의 중층결정을 통해 90년대 여성문학은 다른 어떤 시기보다 다채롭고 풍부한 문학적 결실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1997년 IMF와 함께 한국사회가 신자유주의적 체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여성문학은 강력한 저항선을 만들지 못했다. 자본의 이해관계가 민주주의를 퇴행시킬 때 방의 민주주의가 광장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시장에 투항하면서 거리를 떠돌거나 실종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1990년대는 민주화 이후

의 민주주의가 실험되는 시기였지만, 다른 한 편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IMF 이후에는 생존주의가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의 내면도 지배하는 담론적 우세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먹고사니즘이 사람들의 삶을 삼켜버리는 상황에서 여성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접속 지점들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이르면 젊은 여성들은 페미니즘에 반발하고 남성들은 반페미니즘의 기치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2000년대 한국문학에 나타난 페미니즘 실종 현상은 광장과 방을 연결하려는 1990년대 여성문학의 시도가 신자유주의에 맞서고 남성의 백래시에 튼튼한 바리케이트를 칠 만큼 견고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인지 모른다. 이는 1990년대 여성문학을 추동했던 정체성 정치가 자기 안에 갇혀 다른 사회적 범주들과 소통하지 못한 채 일종의 지적 재산권으로 전락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정체성 정치가 분배의 정치와 결합하지 못하면서 여성문학이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여성들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에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한국 사회에 재부상한 페미니즘 운동과 문학은 시대적 제약에 갇혀있던 1990년대 여성문학의 가능성을 더 급진적으로 실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참고문헌

권인숙,『하나의 벽을 넘어』, 거름, 1989.

은희경,『타인에게 말걸기』, 문학동네, 1996.

_____,『새의 선물』 문학동네, 1995.

전경린,『염소를 모든 여자』 문학동네, 1996.

낸시 프레이저, 임옥희 역,『전진하는 페미니즘』, 2017, 222-242쪽.

낸시 프레이저·악셀 호네트, 김원식·문성훈 옮김,『분배냐 인정이냐?: 정치철학적 논쟁』, 사월의 책, 2014, 23-167쪽.

김양선,「2000년대 한국 여성문학 비평의 쟁점과 과제」『안과밖』 21호, 영미문학연구회, 2006, 40-61쪽.

김영찬, 「90년대는 없다. 하나의 시론, 199년대를 읽은 코드」, 『문학이 하는 일』, 창비, 2018, 149-167쪽.

_____, 「1990년대 문학의 종언, 그리고 그 이후」, 『비평극장의 유령들』, 창비, 2006, 40-60쪽.

_____, 「2000년대, 한국문학을 위한 비판적 단상」, 『창작과 비평』 2005년 가을호, 창비, 297-314쪽.

김은하, 「1980년대. 바리케이트 뒤편의 성(性) 전쟁과 여성해방 문학 운동」 『상허학보』 51호, 상허학회, 2017, 15-49쪽.

_____, 「살아남은 자의 드라마: 여성후일담의 이중적 자아 기획」,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310-339쪽.

박서원, 「엄마, 애비 없는 아이를 낳고 싶어」, 『박서원 시전집』, 최측의농간, 2018, 18-9쪽.

서영인, 「1990년대 문학 지형과 여성문학 담론」, 『# 문학은 위험하다: 지금 여기의 페미니즘과 독자 시대의 한국문학』, 민음사, 2019, 68-94쪽.

서영채, 「1990년대의 마음: 신경숙의 『외딴방』의 의미」, 『죄의식과 부끄러움』, 나무출판사, 2017, 381-420쪽.

_____, 「냉소주의, 죽음, 매저키즘: 90년대 소설에 대한 한 성찰」, 『문학동네』 21호, 1999년 겨울호, 1-33쪽.

신상숙, 「성폭력의 의미 구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의 딜레마」, 『여성과사회』 제13호, 한국여성연구소, 2001, 6-43쪽.

신수정, 「비명과 언어: 여성을 말한다는 것」, 『푸줏간에 걸린 고기』, 문학동네, 2003, 19-46쪽.

신수정, 김미현, 이광호, 이성욱, 황종연, 「좌담: 다시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동네』 22, 2000년 봄호, 1-54쪽.

심진경, 「이것은 페미니즘이 아닌 것이 아니다」, 『더러운 페미니즘』, 민음사, 2023, 35-53쪽.

_____, 「2000년대 여성문학과 여성성의 미학」, 『여성과 문학의 탄생』, 자음과모음, 2015, 221-248쪽.

이명호, 「젠더 트러블과 성차의 윤리학」, 『누가 안티고네를 두려워하는가: 성차

의 문화정치』, 문학동네, 2014, 21-59쪽.
_____, 「성적 주체로서 개인의 발견과 여성적 글쓰기의 실험」, 여성문학사연구모임 엮음, 『1990년대: 성차화된 개인과 여성적 글쓰기』 민음사, 2024, 16-37쪽.
이혜령, 「빛나는 성좌들—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47호, 상허학회, 2016, 409-454쪽.
조연정, 「1990년대 젠더화된 문단에서 페미니즘 하기」, 『여성시학, 1980-1990: '여성을 다시 읽고 쓰는 일』, 문학과 지성사, 2021, 207-249쪽.
_____, 「문학동네의 '90년대'와 386세대의 한국문학」, 『한국문화』 81호, 2018, 221-246쪽.
조주현,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1980-90년대 한국의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2권 1호, 한국여성학회, 1996, 138-179쪽
황정미, 「한국 여성운동의 의제와 성찰성: '차이의 소통'을 위한 전망」, 『안과밖』 21호, 영미문학연구회, 2006, 10-40쪽.
_____, 「젠더 관점에서 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공공 페미니즘과 정체성 정치」, 『경제와 사회』 114호, 비판사회학회, 2017, 17-51쪽.
황종연, 진정석, 김동식, 이광호, 「좌담: 90년대 문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90년대 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 』, 민음사, 1999, 11-80쪽.
_____, 「내향적 인간의 진실: 신경숙, 윤대녕, 내면성의 문학에 대한 고찰」, 『비루한 것의 카니발』, 문학동네, 2001, 113-137쪽.
_____, 「민주화 이후의 정치와 문학」, 『탕아를 위한 비평』, 문학동네, 2012, 73-100쪽.
황주영, 「상호주체성의 가능성: 이리가레의 수평적 초월과 말의 창조」, 『시대와 철학』 26권 1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5, 459-492쪽.
Luce Irigaray, *This Sex Which Is Not One*, Trans. by Catherine Porterand Carolyn Burke. Ithaca, Cornell UP, 1985, 1-50쪽.
Penelope Deuctscher, *A Politics of Impossible Difference*, Ithaca and London, Cornell UP, 2002, 1-55쪽.
Raymond Williams, *Marxism and Literature*, Oxford, Oxford UP, 1978, 121-

128쪽.

Sara M. Evans, *Tidal Wave: How Women Changed America at Century's End*, New York, Free Press, 2003. 1-60쪽.

Abstract

A Mapping of Korean Women's Literature in the 1990s
: Feminine Subject, and Feminine Writing at the Crossroad of Disillusionment and Awakening

Lee, Myungho

Cultural time does not flow lineally. Cultural history is layered like strata. If one of the tasks of criticism is to summon unrealized historical possibilities from the strata of the past and connect them with the fate of the future, we need to go back to women's literature of the 1990s. Women's literature in the 1990s was a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Korean women's literature. With the fall of the Berlin Wall in 1989 and the collapse of the Soviet system in 1991, the progressive movement of the 1980s was in decline, and disillusionment and cynicism toward grand narrative became the dominant structure of feeling at that time. However, for women this period was also a time of sexual awakening. The collapse of the grand narrative allowed women to witness the spectacle of the hugely inflated male subject losing its steam, and led them to the awakening, rebellion, and self-discovery. At a historical turning point where disillusionment and awakening intersected, women's literature in the 1990s was not ghettoized in the periphery of Korean literature, but enters its center. This paper views the three temporalities or fronts of women's literature in the 1990s as ① the restoration of marginalized women through feminist mourning for the national and popular literature of the 1980s (residual front), ② the discovery of 'I' as a gendered subject and experiment of feminine writing (dominant front), ③ the emergence of de-gendered post-individuals and expression of minority queer sensibilities (emergent front), and provides a overall mapping of women's literature in the 1990s through the overdetermination of these three fronts.

Key words: Korean Women's Literature in the 1990s, feminine subject, feminine writing, relational subject, feminine ethics, politics of identity, politics of recognition, plural identities, authenticity, individual, queer, postgender

논문투고 / 2024.11.22.
심사완료 / 2024.12.08.
게재확정 / 2024.12.09.